

■ 고사성어 ⑥



권토중래(捲土重來) 흙먼지를 맡아 일으키며 다시 쳐들어온다는 뜻으로, 한 번 실패한 사람이 세력을 회복해서 다시 공격(도전)해 온다는 말.

이 말은 당나라 말기의 시인 두목(杜牧: 803-852)의 시 <제오강정(題烏江亭)>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다. 승패는 병가도 기약할 수 없으니 【勝敗兵家不可期(승패병가불기기)】 수치를 싸고 부끄럼을 참음이 남아오라 【包羞忍恥是男兒(포수인치시남야)】 강동의 자제 중에는 준재가 많으니 【江東子弟多才俊(강동지제다재준)】 '권토 중래'는 아직 알 수 없네 【卷土重來未可知(권토중래미가지)】

오강[烏江:안휘성(安徽省) 내]은 초패왕(楚霸王) 항우(項羽:B.C. 232-202)가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한 곳이다. 한왕 유방(劉邦)과 해하(垓下

: 안휘성 내)에서 펼친 '운명과 흥망을 건 한판 승부(乾坤一擲)에서 패한 항우는 오강으로 도망가 정장(亭長)으로부터 "강동(江東:江南, 양자강 하류 이남의 땅)으로 돌아가 재기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나 항우는 "8년 전(B.C. 209) 강동의 8000여 자제와 함께 떠난 내가 지금 혼자 '무슨 면목으로 강을 건너 강동으로 돌아가[無面渡江東] 부형(부친)을 대할 것인가'라며 피란 만장한 31세의 생애를 비웃던 것이다.

항우가 죽은 지 1000여년이 지난 어느 날, 두목은 오강의 객사(客舍)에서 일세의 풍운아(風雲兒), ... 단순하고 격한 성격의 항우, 힘은 산을 뺏고 의



경북 영주생 김교공파 34세 -의력- 개인전(4회, 초대그림전2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회 원장

기는 세상을 덮는 장사 항우, 사면 초가(四面楚歌)속에서 애인 우미인(虞美人)과 헤어질 때 보여 준 인간적인 매력도 있는 항우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강동의 부형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으면 강동은 준재가 많은 곳이므로 권토중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31세의 젊은 나이로 자결한 항우를 애석히 여기며 이 시를 읊었다. 이 시는 항우를 읊은 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당송 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왕안석(王安石)은 '강동의 자제는 항우를 위해 권토중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읊었고, 사마천(司馬遷)도 그의 저서 <사기(史記)>에서 '항우는 힘을 과신했다'고 쓰고 있다.

"그럼,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시오" 이라하여 무신군을 찾아간 괴풍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귀공이 범양을 쳐서 현령이 항복한 경우, 그 현령을 푸대접 한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며 부귀를 바라는 각지의 현령들은 '항복하면 범양 현령처럼 푸대접 받는다'며 더욱 군비를 강화하여 마치 '쏟아오르는 못에 둘러싸인 무쇠 성[金城湯池]'같은 철벽(鐵壁)의 수비를 굳히고 귀공의 군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랜 공격이 쉽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지금 범양 현령을 극진히 맞이하여 그로 하여금 각지의 현령들을 찾아보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모두 싸우지 않고 기꺼이 항복할 것입니다."

무신군은 패회 괴풍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한 결과 화북(韓北: 황하 중·하류 유역의 지방)에서만도 30여 성이 항복을 자청해 왔다. 한편 전화(戰禍)를 모면한 범양 백성들은 서공의 덕을 칭송하며 기뻐했다고 한다.

■ 우강 권이역 전 장관 에세이

경로사상

요사이는 경로사상(敬老思想)이 점점 퇴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슬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유학사상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습관이나 생활철학에는 늙으면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나는 이와 같은 습관이나 철학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려했다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노령인구: 2010년 인구주택조사(census)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11월 현재로 4858만명이며 5년 전보다 13만명이 증가하였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은 빠른 고령화 속도이다. 일반적으로 65세이상 고령인구가 7.0% 이상인 경우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0% 이상인 경우를 '고령사회(aged society)', 23.0% 이상인 경우를 '초고령화 사회(super aged society)' 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0년에 11.3%가 되어 '고령사회'에 접근하고 있다.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4.4%로 높아져 '고령사회'가 오고 7년 뒤인 2026년에 23.1%로 '초고령사회'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가 가능한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연수가 독일과 영국에서 각각 40년과 47년이 걸렸고 일본에서 24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19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부양비(扶養比)문제도 심각하다. 부양비에 는 두 가지가 있다. 15-64세 인구 100명에 대한 15세 미만 인구의 비율, 즉 (0-14세 인구/15-64세 인구)×100을 유소년 부양비(幼少年扶養比)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을 노년부양비라고 한다.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친 것을 총부양비라고 한다. 유소년부양비가 감소 일로에 있고 노년부양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주의되어 있는 사실이다.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노령

인구 비율을 노령지수라고 한다. 노령지수가 2005년에 48.6이었는데 2010년에는 69.7로 증가하였다.

노인 진료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1분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가 10조8949억원이며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8.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3조4472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1.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인 진료비문제에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근래에 와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식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한편으로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문제는 의료비 마련이다. 그 방법의 하나가 일본에서와 같은 후기 고령자에 대한 보험금 인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에 대하여는 시사비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올바른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나 같지만 이 세상에 완벽하고 이상적인 복지정책이나 제도가 있을 수 없는 것은 또한 사실이 아닌가? 노후대책이 전연 없는 고령인구에 대하여는 국가가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의 자제: 노인들은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에도 소개한 바 있지만 일본의 102세 현역 의사인 히노하라 시게아키(日野原重明)박사는 7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자립할 수 있는 분들을 회원으로 하는 신노인회(新老人會)를 만들어 활약 중이다. 자신은 노(老)자를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일본의 법률이 '노'자를 없애버렸다고 불평한다. 사람은 75세가 되어도 쓰지 않고 남아 있는 유전자 30% 가까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75세가 되어도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다는 논법이다. 그는 "새로운 시작, "사랑하고 사랑받을 것", "참을 것"등 세 가지 신조를 내세우고 있다. 즉 이 세 가지가 신노인회의 기본정신인 것이다. 신노인운동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환영받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가 주는 걱정이 심각한 까닭이다.



나는 가끔 '노인'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노인'이라는 단어가 자취를 감추었다. 65세에서 75세까지를 전기고령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로 부르고 있다. 후기 고령자들에 대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하여 일본 정부가 후기 고령자의 보험금을 인상했더니 "노인들을 죽일 셈이냐"고 어찌저기서 야단이 났던 일이 전 세계에서 상세하게 보도된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하여 노인문제가 새삼스럽게 논의되기도 했는데 나도 노인이 가져야 할 자세를 더욱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노인이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을 받을 만한 값이 있어야 한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가 존경받을 만한 업적이 있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이 두 가지가 다 만만하지 않다. 나의 7년 선배 중에 한경부(韓敬福) 선생이 계셨다. 서울대 흥부학과 교수로 계시다가 개원의가 되신 분인데 서대문 독립문 근처에서 큰 병원을 운영하셨고 상당히 치부(致富)하셨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찬을 드는 모임을 있었는데 그때마다 "노후를 생각하여서 웬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노후에 질병이 생기면 후손들에게 기대하기 힘들다는 얘기이다. 한 선배는 생전에 생각하신대로 일생을 마치고 있는데 이분의 말씀은 100% 옳다고 생각된다. 중손자·녀들에게도 세뱃돈을 주고 선물을 사줘야 대접을 받는다. 이런 일을 못하는 노인이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훌륭한 업적이 바람직한 것은 물론이지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니다.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한 업적을 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이상의 두 가지가 없는 노인들은 어찌해야 하나. 나이를 먹는다라는 것은 인생을 오래살고 그만큼 경험을 많이 쌓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풍부한 판단력이 있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이 미로에 빠졌을 때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그리고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



금성탕지(金城湯池) '쏟아오르는 못에 둘러싸인 무쇠 성'이란 뜻으로, 방비가 아주 견고 함을 이르는 말.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 B.C. 246-210)가 죽고 어리석은 2세 황제가 즉위하자 전국시대 6강국의 후예들이 군사를 일으켜 고을의 우두머리를 죽이고 관청을 점거했다. 그 무렵, 무신(武臣)이라는 사람이 조(趙)나라의 옛 땅을 평정하고 무신군(武信君)이라 일컬었다. 이를 본 모사 괴풍(鄒通)은 범양 현령(范陽縣令) 서공(徐公)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사또께서는 지금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말대로 하시면 전화(轉禍爲福)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공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엇이 위급하다는 거요?" "사또께서 현령으로 재임한 지난 10년 동안에 진나라의 가혹한 형벌로 인해 부모를 처형당한 사람, 손발을 잘린 사람, 억울하게 죄인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들이 사또를 원망하며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모르오 그런데, 전화위복이란 또 무슨 말이오?"

"제가 사또를 대신해서 지금 세력이 한창인 무신군을 만나 싸우지 않고 땅이나 성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계책을 말해 주면, 그는 틀림없이 사또를 후대할 것입니다."

재미있는 나무 이야기 ①

매·화·나·무

▣ 靑南 權寧 漢 (안동전통문화연구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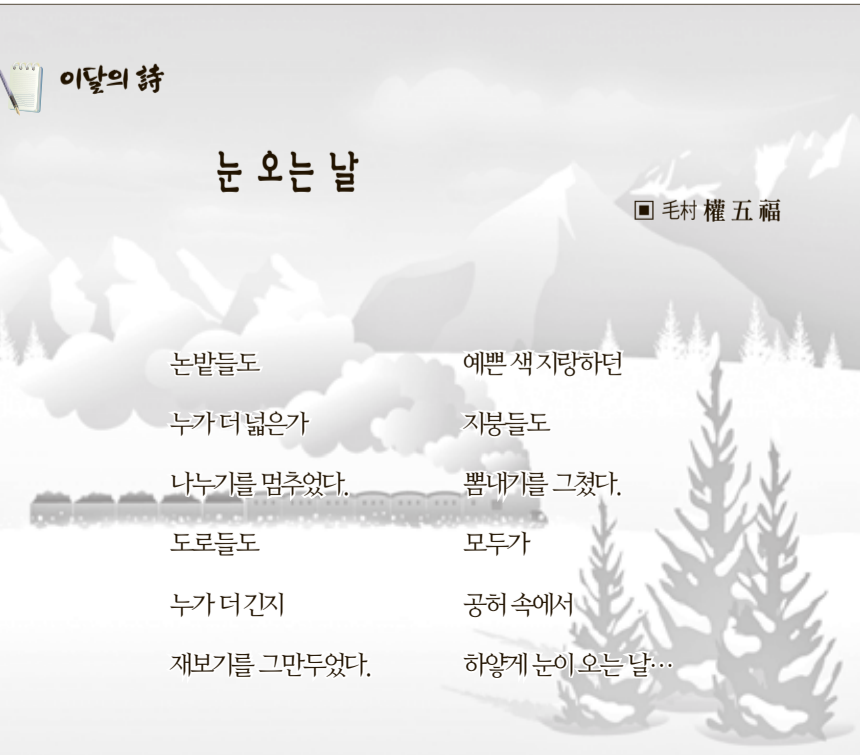


퇴계 선생이 한때 단양 현감으로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생을 몹시 사모하는 기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생께 사랑의 정표로 여러 가지 선물을 드렸으나 청렴 결백하신 선생께서 받으실 리 없고 번번이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생은 너무나 선생을 사랑했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선생께서 무엇을 가장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을 아전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화를 무척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

니다. 기생은 곧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풀어 전국을 수소문해서 매화 한 그루를 구했는데, 희다못해 푸른 빛이 나는 아주 좋은 백매화를 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매화를 선생께 드리니, 선생께서도 "나무야 못받을 것 없지." 하시며 그 나무를 동헌 뜰 앞에 심고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후 도산으로 오실 때 그 나무도 함께 가져와서 서당에 심었는데, 지금 도산서원에 있는 매화도 그때 그 나무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달의 стих

눈 오는 날

▣ 毛村 權五福

눈밭들도	예쁜 색지방하던
누가더 넓은가	지붕들도
나무기를 멈추었다.	뿔대기를 그쳤다.
도로들도	모두가
누가더 긴지	공허속에서
재복기를 그만두었다.	하얗게 눈이오는 날...

■ 역사기행

오대산(五臺山) 사고(史庫)

▣ 향촌 권오창 (본원 자료위원)



적 건물이다. 절 밑 언덕에는 선원보각(禪源寶閣)이 있는데 이 건물은 왕실건축물로 보관하던 건물이다. 이는 사적(史蹟) 제3호이다. 선원보각 바로 밑에는 사각(史閣) 건물로서 왕조실록을 보관하였던 주된 건물이며 사적(史蹟) 제3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체 사고 건물을 둘러싼 돌담이 있었으나 지금은 일부만 잔존하고 앞쪽 큰 대문만이 뜰계단을 따라 열려 있다. 이제 이 건물 안은 텅빈 공간으로 역사기록물을 보존하였던 역사기록보존에 관한 지혜에 깊은 감탄과 아울러 세계적인 문화유산에 대하여 높은 긍지를 가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사고(史庫)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조선조에서는 처음에 역대 왕조실록을 보존관리하여 왔으나 1439년(세종 21년)에 금속활자로 출판하여 서울에 있는 춘추관 청청도에는 춘추, 청구 전라도에는 전주에 사고를 설치하고 각 1부씩 보관하였다고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놓았다. 이 4곳의 사고는 임진왜란 때에 3곳은 모두 소실되고 전주사고(全州史庫)만이 남았는데 이를 1502년(선조 25년)에 왕조실록 804권과 기타 서적을 내장산으로 운반 보관하였으나 1503년(선조 26년)에 다시 내장산에서 황해도 해주로 옮기고 또 다시 해주에서 강화도로 옮기고 다시 평안도 모향산으로 옮겼다. 왕조실록 등의 피난 이전 경로는 정말 눈물겨운 일이었으며 역사기록물 보존인식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사고(史庫)는 역사에 관한 기록 및 서적을 보관하였던 창고이다. 고려말 때부터 있었으며 체계적인 기록보관 관리 는 조선조 세종 때에 이르러 시행되었다. 이는 사각(史閣)을 지어 보관하였는데 보통의 경우 사고설치(史庫設置)는 깊은 산중에 지리적인 여건과 기후적인 면을 고려하여 절(刹) 가까운 곳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전란에 의한 소실이라든지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장소를 선택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주관하는 관청은 춘추관(春秋館)이 있다. 춘추관은 세부업무분장에 따라 타 기관의 관리들이 이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도 있었고 모두 문관이다. 주된 업무는 추가의 시정(時政)을 기록 보관하였다. 생산되는 자료는 논의 교명 국사 등의 기록이다. 특히 사초(史草)를 쓰던 관원은 왕(王)의 언행과 정사(政事) 또는 백관의 잘잘못을 직필(直筆)로 써서 후세에 거울로 삼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계(狀啓)나 왕의 교서(敎書)는 반드시 사관(史官)을 거쳐 초록(草錄)을 하여 관련기관에 하달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을 춘추관에 보관하는 한편 사고(史庫)를 건축 설치하여 철저한 관리를 하였다. 여기에는 사서 실록왕실관계의 중요 전적(典籍) 등을 보관하였다. 조선조 때에 태종은 춘추관 사고를 설치하여 1413년 왕조실록 편찬사업으로 태조실록을 편찬하였고 안전 보전을 위하여 4부씩 만들어 보강한 사고로서 해

당지역 4곳에 사고를 설치한바 있다. 이번엔 서울 강남구 문화원 주최로 역사방법계획의 일환으로 강원도 오대산 사고지를 찾아가는 일정계획에 따라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그 간략한 답사기록을 먼저 적고 사고(史庫)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후술하기로 한다. 오대산 사고설치는 1605년(선조 38년) 전주(全州) 사고(史庫)의 왕조실록을 대본으로 하여 발간한 책 1부를 보관하였던 곳이다. 소재지는 월정사 만사인 사고사(史庫寺)가 있는 평강군 전 부면 동산리 산 언덕 중간지점이다. 월정사에서 약 3km 떨어진 산림이 울창한 2m 폭의 비포장도로이고 경사도 60%의 산속이다. 상원사와 적멸보궁쪽으로 가는 도로 계천이 흐르는 왼쪽 갈림길에서 약 0.5km 편석이 깔린 길을 따라 올라가면 된다.

오대산 사고는 건축 후 보수과정을 거쳐 유지되어 왔으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전체가 소실되었고 현재의 건물은 1902년 본래의 건축설계 자료에 의하여 복원되었다. 사고 건축물 가장 위쪽에 있는 사고사(史庫寺) 역시 6.25 때에 소실된 것을 1961년에 중건하였다.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수직사(守直舍)는 터만 남았는데 길가에 표지석만 세워져 있으며 그 터는 발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언제인가는 문화재 복원 계획에 의하여 복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수직사(守直舍)는 사고를 지키고 관리하는 당

그 후 조정에서는 1603년(선조 36년)에서 1606년(선조 39년)에 걸쳐 태조부터 명종까지 13대의 실록 804권의 왕조실록 원본과 교정본을 출간하여 서울에 춘추관 태백산, 오대산, 모향산에 분장하고 구분은 강화도 마니산 사고에 소장하였으나 모향산 사고는 폐지하고 무주 적성산(赤城山)에 설치하는 한편 강화도 마니산 사고도 정족산(鼎足山)에 이전하였다. 각 사고에는 오대산 사고 담당에서 본파와 같이 사각 선원보각의 건물을 두고 있다.

일제(日帝) 강점기에는 정족산 태백산 사고 실록은 조선총독부로 이관 조치되었고 오대산 사고 실록은 일본 동경제국대학으로 이관된 바 있다. 1923년 일본으로 가져간 실록은 관동대지진 때에 거의 소실되었으나 당시 대출되었던 몇 권은 문화재반환 협약에 따라 한국으로 돌아왔다. 태백산본은 1930년대에 경성제국대학에 이관되었다. 이는 현재 서울대에 있고 적성산 사고본은 구황실 문고에 보관되고 있다. 그 후 정부에서는 태백산본을 국내 도서관과 주요 외국 도서관에 배포하였다. 이는 1950년대 후반의 일이었다.

여기에 한 가지 알아 둘 것은 왕조실록은 태조 때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의 역사 사실을 년 월 일 순에 의하여 기록된 사실이다. 고종과 순종은 일본의 지시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를 합하면 27대 518년의 기록이다.

그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대외적 관계도 나타나고 있어 역사연구 자료임과 아울러 세계기록문화유산에 큰 몫을 차지하는데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